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통독
: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일년일독 성경통독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송광수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Kwangsoo S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Bible Tongdok as a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 A Case Study of the One Year Bible Tongdok at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Kwangsoo Song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Georgia, U.S.A.

Since H. Appenzeller and H. Underwood had come to Korea in 1885, Korean churches have grown to an unprecedented extent in the church history. However, current Korean churches show a sign of decline. This may be due to a lack of maturity and growth in faith despite the impressive success in the numerical growth of chu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curriculum in Christian Education to help Korean churches their growth by returning to the Bi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searched using ‘the Curriculum in the church’ by Maria Harris and ‘the One Year Tongdok Bible’ by Byoung-ho Zoh. Harris presents five categories in her curriculum that defines the entire process of faith. Zoh insisted on reading the Bible as a whole, not in part, to read it in chronological order, and to focus on the heart of God - this is what he defined as “Tongdo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iculum in the Church” and “the One Year Tongdok Bible” in detail. Moreover the author proposes ‘the One Year Bible Tongdok as a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as an alternative program. The author interviewed, four people in-depth,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s a result, ‘the One Year Bible Tongdok’ is an effective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Especially, categorizing the Bible Tongdok into five sections as Harris suggested is very effective.

Korean churches should refocus on the Bible,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faith, through the spirit of the “*ad fontes*”. Only then Korean churches can reflourish by pursuing the Christian spiritual practice of recovering the image of God. In conclusion, this study expects ‘The One Year Bible Tongdok’ will be an effective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to help bear the missional fruits of Korean churches.

국문초록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통독

: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일년일독 성경통독 사례연구

송광수

아틀란타한인교회, 조지아, 미국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한한 이래로 한국 개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겉으로 보이는 교세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그 이면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이전과는 다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목회 커리큘럼’ 과 조병호의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리스는 ‘교회 생활의 전 과정’ 을 커리큘럼으로 보았고,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병호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하며,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였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통독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목회 커리큘럼’ 과 ‘일년일독 통독성경’ 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 4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교육목회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별히 해리스가 제시한 다섯 가지 영역에 따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국 교회는 ‘아드 폰테스’의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성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독교적 영성을 추구함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일년 일독 성경 통독’으로 효과적인 교육 목회를 이루어 한국 교회의 선교적 결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	6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6
논문의 구조	7
II.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이해	8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	9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	13
III.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통독	20
코이노니아로서의 성경통독	24
레이투르기아로서의 성경통독	26
디다케로서의 성경통독	28
케리그마로서의 성경통독	29
디아코니아로서의 성경통독	31
IV.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참여자 심층인터뷰	34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34
인터뷰 개요	48
인터뷰 내용: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일년일독 성경통독	48
결과 분석	66

V. 결론	70
요약과 평가	70
결론과 제언	72
부록	75
참고문헌	89

감사의 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을 수료하고 중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그간 교목이 되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해 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른다. 특히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서울과 대전을 통학하며 지내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던 수많은 후원자들의 지지에 감사 드린다. 조기 졸업을 허락해 주셨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드리며 휴학을 했지만, 곧장 경화여자고등학교 교목으로 임용되고부터는 차마 그 약속은 이행할 겨를도 없이 너무 멀리 떠밀려 온 세월이 그저 민망한 마음만 남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하심을 따라 이역만리 미국에 와 있는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을 언제, 어떻게 다 만나 뵙고,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을지 더더욱 막막할 따름이다.

학부 시절, 채플 강사로 다녀 가면서, 천여 명의 회중 속에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그 학생에게 전해 달라며 교목실에 책을 톡 맡기고 가신 조병호 박사. 석사 시절, 기독교 교육학 소양에 충실하고 싶어서 감신 학부 수업을 청강할 때, 매력적인 교육목회의 길을 제시해 주신 김영래 박사. 목회자로, 이 시대 실천적 신학자로서 저의 역할 모델이신 레너드 스윗 박사. 존경하는 이 세 분의 지도 아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마친다는 것이, 어찌면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모습을 위해, 부단히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통독(Tongdok)하고, 교육(Education)하며, 선교(Mission)하기 위한 드루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의 연구는 나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과정이었다. 미국 이민자들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적용하며 연구할 수 있었고, 특별히 미래의 교회인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통독을 통해 교육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 하는 목회가, 오고 오는 미래 교회 영성의 푸른 빛깔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더욱 감사한다.

웨슬리와 아펜젤러의 유산이 한국감리교회라면, 그 전통 속에서 손자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정회원 목사안수를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사랑하는 할머니 故 이영순 장로, 지금도 장손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 존경하는 할아버지 효암 송용재 원로장로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까지 자라나도록 교회 생활의 전 과정을 선사한 마산동광교회, 승복교회, 주님의교회, 길가에교회, 창천교회, 상계경신교회, 수포교교회, 남산교회 그리고 지구촌교회. 대전의 배재대학교회, 산성교회. 미국 뉴난한인교회, 아틀란타한인교회. 이에 더하여 주님의 은혜로 동역하는 영락교회 예혼(‘그 청년 바보의사’ 故 인수현 형제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카피케어 코리아(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과 하스데반 선교사를 기억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종교학’ 교과서 심의위원회(한국의 기독교 종교 교육은 세계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함께 호흡한 동화고등학교, AN외국어학교, 배재대학교, 대전대신고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들, 학생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잊힐 듯 안 잊혀지는 감신 총대학원 학생회와 승실기독인연합, CCC, 웨스트민스터합창단, 교목의 소명을 갖게 한 자랑스런 모교 현대고등학교에도.

끝으로, 무익한 종의 가정으로 부름 받아 따라 나선 사랑하는 아내 전효진 집사와 자녀 은채, 은영, 기대를 비롯한 온 땅 끝의 권속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애틋한 심정을 전하며, 이 논문이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의 교본으로 남기만을 바란다.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영광스런 감사 찬양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1년 3월

송광수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보낸 2020년, 2019년이 남기고 간 ‘COVID-19’ 라는 감염병의 대 유행(pandemic)은 인류사에 남을 만한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충격의 여파로 등장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은 인류의 생활 양식에 긴급한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대표할 수 있는 변화의 조류는 이미 각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 속으로 깊숙하게 밀려 들어왔다.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일반화되었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게 하는 각 공동체들의 조처는 안전한 생활 습관으로서 비대면 환경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대응책을 목회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던 교회는 시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화, 민주화와 더불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는, 시대의 변화 속에 점점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교회적으로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원규는 작금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사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춰 버린 것과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아니 생존하려면 철저한 자기 갱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 정체의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한국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 이제 한국 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영적, 도덕적, 공동체적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한국 교회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갱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장 신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전도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¹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바람직한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교인이 교인으로서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본질의 회복은 종교개혁 때의 자세로 성경²으로 돌아가는³ 정신을 실천함으로 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에 관건이 있다고 본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역사적으로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왔는데, 근자에 이르러

¹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20-31.

² 본고에서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거룩한 책으로서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성경(聖經)'으로 기술하며, 이하 '성서(聖書)'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성경으로 표현했다. 참고) 왕대일, *구약성서 이해 열 마당*, (서울: 새길, 2007), 14-15, 이성덕, *구약성서 길라잡이* (대전: 배재대학교 학술정보처, 2014), 7.

³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83-85; 106, 에서 제시한 'ad fontes',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 2*, (HarperCollins, 2006), 10, 에서 제시한 'a return to the sources of Christianity'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회복은 그 궁극적 원천이 되는 성경에 있음을 주지한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서의 인간'상을 깨우치도록 하는 성스러운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교육적 차원들을 논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오인탁(Intak Oh)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 그 세 번째는 영성이다. 영성은 물질주의적 인생관에서 벗어나 영적, 정신적 세계에서 자신의 고유하고 충만한 삶을 찾고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상대적이고 계량적인 가치로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결코 짝들 수 없고 배양될 수 없다. 영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절대, 개인, 자유, 특수 등의 바탕 위에 상대, 집단, 방법, 일반 등의 교육을 접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영성의 교육에서는 어떤 개인도 그의 신체적, 감성적, 지적 상태의 상대적 결핍 또는 탁월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고 발휘하고 있는 유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절대적 인정이 바탕이 될 때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 1:7)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식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씀을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모든 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 교육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교육은 영성의 도야를 기본으로 한 인간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⁴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회적이며 동시에 교육적인 대안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영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⁵, 즉 성경이며, 그 성경에 담긴 분명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⁴ 오인탁은 한국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을 대표적으로 인간, 개인, 영성, 자율 등 4가지로 진단했다. 참고 오인탁,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26-27.

⁵ 막 1:1.

사랑을 실천⁶하는 것으로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되찾을 수 있다. 특별히 감리교회 신학은 ‘성경 안에서(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를 강조하는데, “ ‘성경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증언이 들려지며,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발견”⁷하기에, 거기로부터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이 같은 일들이 미래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성경이 신학의 자원이나 인도함을 주는 자원 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문(text)”⁸으로써 이 책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러할 때 교회는 사회를 향해 항구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병호(Byoungho Zoh)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⁹ 영성’ 에 대해 강조한다. 성경통독원을 통해 성경 통독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성경 66권은 각 권의 완결성이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면서,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매일 진행한 유튜브 ‘통박사 조병호가 읽어주는 성경’ 에서 누적 조회수가 4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¹⁰ 또한 그가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성경 본문을

⁶ 요 13:34.

⁷ W. Klaiber, M. Marquardt, *감리교회 신학*, 조경철 역 (서울: KMC, 2008), 94-95.

⁸ 여기에서 그는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the art of being present to God)이라고 규정했다. 참고) 두란노 편집부,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특별대담*, (서울: 두란노, 2000), 24-53.

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7), 14.

¹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637&code=23111211&cp=nv> (2021년 2월 5일 접속).

역사 순서로 재배열한 일년일독 통독성경¹¹은 효과적인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COVID-19의 위기 속에서도 성경 통독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맑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여실히 증명해 가고 있다.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조병호의 성경 통독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특별히 신앙 생활의 전 과정을 강조하는 해리스와,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기를 강조하는 조병호의 관점은, 전체를 강조하는 홀리스틱 교육¹²의 맥락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 사회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기독교 교육으로서, 이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때처럼 원천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되어 주는 것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무지개를 메타포로,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미친 지혜를 회복한다면,¹³ 우리는 모든 한계-부서진 무지개-를 넘어, 무지개를 만들어 가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도전했다.¹⁴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지금의 무기력한 정상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역설적인 일침이다.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¹¹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¹² 오인택은 '홀리스틱(holistic)'을 '전체적' 또는 '완전한'이라는 말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함을 밝힌다. 참고) 오인택,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241-278;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 2008), 185-200.

¹³ 스위트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로 NUTS(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 지혜라고도 표현한다. 참고) Leonard Sweet,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윤종석 역 (서울: IVP, 2004), 22.

¹⁴ Ibid., 145-165.

하나님 나라로 학습자를 이끌어 신앙을 심화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데에 기독교적 종교 교육의 목표가 있음을 밝히면서, 예수 안에 있는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도록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을 강조했다.¹⁵ 여전히 교회의 사명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소명과, 쇠퇴론, 위기론 대신, 역설적이고 해석학적인 용기와 지혜를 통하여 희망을 주는 영성은, 그 원류가 되는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이 첩경이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비롯하여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을 적용한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문헌 연구로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관계된 교육과 목회 신학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사례 연구로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활용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년일독 성경 통독과정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성경 통독이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넓게는 기독교 종교 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에 있어서, 좁게는 교회 교육(Education of the Churches)에 있어서, 성경 통독이 체계성을 갖춘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음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해리스의 기독교

¹⁵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67-93.

교육학 이론과 조병호의 성경 통독 이론이 만나는 실천신학적 성과를,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적용한 사례임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참신한 방식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촉진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논문의 구조

논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서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2장에서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마리아 해리스가 제안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로서 적합한 조병호의 성경 통독 방식을 들여다보고, 4장에서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를 약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을 약술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구조이다.

제 II 장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이해

마리아 해리스는 '교육목회 커리큘럼(원제: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¹⁶을 통해 목회에 있어서 커리큘럼에 대한 적절한 도전을 주었다. 종래의 교회 교육은 대체로 교육(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 교육체제)과 목회(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배와 심방 중심의 목회적 돌봄)로 이분화 되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해리스는, 먼저는 커리큘럼이라는 의미로 제시된 '교육 과정'의 요소가 교회 교육에 적용되면서 기독교 교육학의 체계성이 목회에 필요한 것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schooling)의 커리큘럼과 교육(education)의 커리큘럼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육하는 기관(educating institution)으로 보면서, 교회의 여러 목회적 기능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조화 하려는 교육 목회 이론을 전개한다. 그 결과 교육 목회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 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기에,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¹⁶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명료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 ‘목회’, 그리고 ‘커리큘럼’이라는 주제어가 각각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이해를 막기 위해 ‘목회’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교육 목회’와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로 개념을 규정하고,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헤리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하면서, 먼저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목회적(pastoral)’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의해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별된 존재로 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곧 목회적 소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 소명이란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의 부름 이고,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기에, 목회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지닌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교회의 유형을 4개의 M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목회적 교회(Ministry Church), 그리고 유지적 교회(Maintenance Church)와 박물관 교회(Museum/Monument Church)의 네 가지 유형이다.¹⁸ 교회가 고유한 사명인 ‘선교’로부터 목회의 의미를 건물과 제도 등으로 축소시키고, 간신히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형태를 지나 중국에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외형만 남아버린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미래교회가 목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¹⁷ Ibid., 27-42.

¹⁸ <http://news.v.daum.net/v/200801111181109519>(2021년 2월 5일 접속).

교회가 지닌 고유한 사명을 선교로 이해하는 지점에서 해리스와 스윗의 견해는 그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강조하는 스윗의 견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목회적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 사명이라는 해리스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는 맥락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교회가 본질상 회복해야 할 것은 고유한 목회적 소명인 선교이며, 따라서 교육 목회는 그러한 목회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리스는 교회에는 교육적(educational) 소명이 있다고 한다. 부름 받은 백성에게는 목회적 소명이 평생의 소명이라는 입장에서, 교회 교육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끊임없이 생의 여정에 주어진 과정이기에 교육적 소명이라는 것이다. 형태를 제공하는 - 더 정밀히 말하면 교육은 특히 형태의 창조, 재창조, 형성, 재형성과 관련된 - 활동으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해리스는, 교회가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자, 교육 활동과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⁹

김영래(Younglae Kim)는 교육적 교회를 21세기 교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²⁰ 이는 교회 교육이 기존에는 학교라는 형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면,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희석되어버린 목회 자체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접근 방식으로서, 교육은 곧 목회라는 전체적 개념으로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목회의 일부 또는 수식 관계 정도로 여겨지는 교회 교육을 넘어 교육적 교회가 소명이 되어, 획일적인 신앙 대신에, 다양한 삶과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신앙생활을 장려하는 데에서 해리스의 견해와

¹⁹ Ibid., 46-61.

²⁰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통독원, 2017), 95-115.

같은 입장이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이 목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목회 자체인 것에서 시작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교육적 교회를 이루게 될 것²¹이라는 김영래의 견해는, 교회가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다는 해리스의 이론을 확장시키는 제언이다. 한 마디로 교육 목회는 목회적 소명을 구현하기 위한 전 영역에서 교육적 소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회 생활의 모든 형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인 것이다.

끝으로 커리큘럼은 라틴어 원어- *currere* -의 의미로 달려야 할 코스(*race course*)의 문자적인 뜻을 품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교육 과정으로 번역한다. 다만 좁은 의미의 교육 과정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 내용만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에,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커리큘럼은 교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의 경험이나 전체 생활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학(*supervision*)의 개념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²²

이와 같은 흐름에서 해리스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란 교육하는 교회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경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해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하는 교회의 소명을 이해할 때, 특정한 활동만이 아닌 교회 생활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모든 과정이 곧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된다는 과정적인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으로서

²¹ Ibid.

²² 문도연, 장원동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상조사, 2004), 303-304.

커리큘럼(curriculum of schooling)의 제한적인 의미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인 견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영성 교육에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은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실천적 신학의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해리스가 제시한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효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강용원(Yongwon Kang)은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을 밝히면서 몇 가지 과제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이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했고,²³ 고용수(Yongsoo Koh)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응 방향을, 공동체 중심의 교육 목회로서, 그것은 학습 경험으로 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서 연계 되는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제안했다.²⁴ 이와 같이 목회의 부수적인 요소로서의 교육 목회의 의미를 넘어, 목회의 모든 영역이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적 교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목회는 한 마디로 교육하는 교회를 뜻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를 목회적 소명과 교육적 소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 목회적 소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살려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삶의 방식, 이를 테면 ‘선교(mission)’와 같은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적 소명이란 사람의 전 생애를 통틀어

²³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339-343.

²⁴ 고용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44.

삶을 형성하는 끊이지 않는 활동으로서, 교회의 모든 활동 즉 사역의 여러 형태에 관여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커리큘럼은 넓은 의미의 교육 과정으로서 특히,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서 교육과 목회의 이분화 된 형태를 극복하면서, 교회 생활의 전 영역에서 짜임새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 일련의 실천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그 소명을 지니고 활동하는 모든 형태가 교육 목회이며, 그 과정에 담긴 교육 내용을 비롯한 신앙 발달 단계의 생태 환경 등 회중을 형성²⁵하는 전 과정을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

해리스는 비록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행 2:42-47)를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원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원어의 특성을 존중하듯 특징적인 다섯 개의 헬라어를 발췌하여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순서에 의하면 케리그마(Kerygma), 디다케(Didache), 코이노니아(Koinonia), 레이투르기아(Leiturgia), 그리고 디아코니아(Diakonia)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케리그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 ; 케리그마] 서로

²⁵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39-240.

교제하며[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레이투르기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코이노니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디아코니아]....(행 2:32, 42-
 47).²⁶

해리스가 인용한 32절은 성령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22절부터 '예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일에 증인인
 것'으로 복음의 선포와 관련된 케리그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준다.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은, 배우는 형태로서 가르침의 사역과 관련된
 디다케에 해당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또한 케리그마에 해당한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예전과 예배 활동의 전형적인 모습이기에 기도의
 커리큘럼인 레이투르기아에 해당하며, 44절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활동으로서 공동체가 지닌 공유성에 기초한
 코이노니아에 해당한다. 45절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인 디아코니아에 해당한다.

사도행전 2장 전체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비롯되어, 이른 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뒤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맺어지고 있다.
 해리스가 인용한 단락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따르는 순서라는 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적용이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같은 본문을,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강해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생활은
 오순절의 결과라고 보았다.²⁷ 김경진(Kyoungjin Kim)도 이 부분의 기사에서 발견되는

²⁶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74-75.

²⁷ 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64-96.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유력한 특징인 것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 정립은 결국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자아내게 만들면서 교회를 부흥케 했다고 주석했다.²⁸

따라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교회 활동의 전 과정이라는 해리스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러한 교회 활동의 시작점이자 완결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는 성경적 근거로서의 본문이 되는 것이다. 케리그마와 디다케,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로 제시된 다섯 개의 헬라어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들이자 동시에 계승해야 할 모범적인 전통이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구별된 모습 속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²⁹는 성장의 결과가, 성숙한 실천은 도외시 한 채 세속적인 가치의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일부 교회가 초래한 결과와 상반되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다.

해리스는 코이노니아(공동체의 커리큘럼)를 첫 번째 커리큘럼의 형태로 시작한다. 가르침이나 예배보다는, 더 우선적이고 교육적인 사역으로서 공동체(community)와 교제(communion)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생활이야말로 가르침 또는 섬김에의 봉사행위(outreach)를 위한 예배나 프로그램의 양식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데에서 코이노니아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들 중에서 전제 또는 도입의 기능을 한다.

해리스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해리스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는

²⁸ 김경진,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83-108.

²⁹ 행 2:47B.

교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은 사랑이다. 해리스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공동체는 다스리는 실재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실재로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실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을 성취하게 됨을 강조한다.³⁰

두 번째 커리큘럼의 형태는 레이투르기아(기도의 커리큘럼)이다. 해리스는 모든 공동체는 고유한 모임의 방식 속에서 확립된 형태를 갖게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라면 그 중심적인 형태와 규칙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생활이며, 공동체의 기도생활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달하기 위한 특징적인 형태라고 한다. 교육적인 사역의 커리큘럼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도록(to) 교육받기도 하지만, 기도에 의해(by) 교육을 받기도 하며, 그것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때에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해리스의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회적 사명에 따른 교회 생활이다. 교회 내에서의 기도에는 소위 ACTS(찬양(Adoration), 참회(또는 고백: Contrition), 감사(Thanksgiving), 탄원(Supplication))의 형태들이 있으며, 개인적인 기도, 공동 기도의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때때로 기도는 의미를 확장시켜 찬양,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들과 악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면에서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경배(adoration) 가운데 있고자 하고 경이(wonder) 속에 있고자 하고 사랑과 희망 가운데 있고자 하는 모든 활동인 것이다.³¹

셋째로 디다케는 가르침의 커리큘럼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신성시되는

³⁰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89-112.

³¹ Ibid., 113-132.

역사를 지닌 단어이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사회적으로는 교사의 역할이었고, 신명기 6:6-7을 포함한 토라의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유대적인 관행에서의 중심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디다케에 있어서 가르칠 소명과 동시에 가르침의 항목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지식과 율법들을 형성하는 교리, 메시지 등의 가르쳐지는 내용(what is taught)과 더불어 가르치는 행위, 과정 등으로서 바로 '그(the)'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디다케의 형태들은 내적인 형태들(Internal Forms)과 오늘의 형태들(Contemporary Forms)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형태들은 교리문답교육(catechesis)과 설교(preaching) 등 교회 생활로의 기본적인 안내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들이며, 오늘의 형태들은 전술한 교리문답교육과 설교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제기하며,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해석을 수정하는 것들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리스는 디다케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1) 가르침이 일어나는 광범위한 환경(A Wide Range of Settings)을 강조해야 할 필요, (2) 가르침의 형태들의 목록(A Repertoire of Forms)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디다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3) '주제' 라는 표제 아래 소주제(topics)의 폭넓은 범위로 토픽들을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³²

해리스는 케리그마를 말씀 선포의 커리큘럼으로서, 언제나 선포된 내용(what)과 선포하는 행위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이요,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³² Ibid., 133-153.

되었고 수 세기에 걸쳐 지금도 육신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시대를 위해서도 갖게 되는 함축된 의미는 오늘 날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케리그마의 속성은 교회를 교육함에 있어서 시공을 초월하며 끊임 없이 재형성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케리그마에 대한 커리큘럼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by the word)’ 교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to the word)’ 양육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참여자로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주체들(subjects)로서, 말씀을 계시하는 중재자(mediators)로서의,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취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근원적 케리그마의 의미가 시대를 관통하면서 변함없이 발휘하고 있는 능동적이고 생동적인 강력한 능력이 되는 형태로 성경, 신학, 그리고 설교를 들 수 있다.³³

해리스는 디아코니아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커리큘럼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성경의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³⁴’ 에서,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돌봄과 봉사에 대한 소명을 갖는 맥락을 의미한다. 그 소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의 기쁨들을 공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그 출발점은 가장 먼저 예수의 인격 안에 있는 능력, 즉 공허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태도를 말한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디아코니아의 형태들은 사회적 돌봄, 사회적 의식, 사회적 능력부여, 사회적 입법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돌봄은 직접적인

³³ Ibid., 154-175.

³⁴ 요 13:34.

형태의 봉사료, 산상수훈의 팔복을 실제로 구현하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평화를 만들며, 공흠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적
의식은 간접적인 형태로 실천하는 봉사료, 복음에 적대적인 일들에 항의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참여 의식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능력부여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자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입법이란 복음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당면한 입법의 과제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³⁵

³⁵ Ibid., 176-200.

제 III 장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³⁶

성경 통독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다.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완결성은 모든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 교육은 기독교적 양육과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 인성 교육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모든 성경을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하는 조병호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송순재(Sunjae Song)는 기독교 교육자로서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한 페스탈로찌(Johann H. Pestalozzi)를 소개한다. 페스탈로찌는 기독교 교육사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했는데, 그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루소(Jean J. Rousseau)적 의미에서 종교성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지만, 이신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³⁶ 딤후 3:16-17.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했다고 한다. 국가적 교회에서 행해지던 교리중심적 교육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종의 기계론적 교육에 불과하다는 성찰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행위,³⁷ 다시 말해 성경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적 양육이었던 것이다. 페스탈로찌는 내적이며 고백적인 기독교 신자였고, 순박하고 겸손한 신앙심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자신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으며 성경을 읽는 것로부터 “용기와 힘, 그리고 평화”를 얻고자 했던 사람으로, 제도적 교회의 교리 교육과는 판이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³⁸고 송순재는 평가한다.

페스탈로찌는 종교적인 것을 윤리적 행동과 결합된 성경적이며 어린이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파악했으며, 이 관점을 매주 한 번씩 종교수업시간과 페스탈로찌 자신이 주관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는데,³⁹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수행된 믿음을 배우도록 이끌되, 인간됨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마르히탈 계획(Marchtaler plan)의 지향점⁴⁰과 공유되는 영역에 있다.

이처럼 페스탈로찌의 독창적 교육은 성경적 기독교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랑의 학교’로 정평이 난 페스탈로찌의 교육은,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실천이 뒤따랐던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로서의 형태를 비롯해, 수업시간과 정기적인 예배로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로서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된 일종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었다. 그 중심에는 케리그마의 형태인 성경 읽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성적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의미

³⁷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231.

³⁸ Ibid., 233.

³⁹ Ibid., 241.

⁴⁰ 강선보 외 6인 공저,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37-80.

있는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 인성 교육의 논의를 가능하게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조병호의 성경 통독은 통으로 성경을 읽는 과정의 하나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권장한다.⁴¹ 소위 통 성경⁴²으로 명명한 성경 읽기는 동양의 배움과 지식 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되던 통독의 전체적 학습 방식이, 서양의 분석적 학습 방식과 통합되어, 전체를 통해 부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는 방법⁴³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숲과 같은 전체와 나무와 같은 부분을 통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는데, 편식하 듯 일부분만 읽는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통독을 하면 얻어지는 직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⁴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병호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독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였고, 일년 일독을 기준으로 총 365개의 단위로 묶인 성경을 편찬⁴⁵했다.

통 성경은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점에서 부분과 전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다. 페스탈로찌의 교육이 서양의 전통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전인적인 통합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통 성경은 같은 맥락의 홀리스틱 교육과 의미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통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으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효과를 가볍게 여기지

⁴¹ 조병호는 2008년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편찬한 바 있고,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365일 성경 통독을 펴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마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⁴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15.

⁴³ Ibid.

⁴⁴ Ibid.

⁴⁵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않으면서, 더 큰 지혜로 승화시키는 통합을 추구하는 바 생동감 있는 홀리스틱 교육이다. 조병호는 기쁨과 슬픔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언약과 성취의 신앙계승,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고난과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서 우선순위,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와 균형, 하나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는 실천이 통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직관⁴⁶ 등을 성경 통독의 효과들로 제시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균형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존 스토틀은 균형 잡힌 기독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일반적 현상인 양극화를 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성과 감성을 모두를 강조해야 합니다. 또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강조하며, 성경을 보수하되 성경으로 문화를 평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보완해주는 형식과 자유를 동시에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강조하되, 둘 중 어떤 것을 반대편을 대치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위의 네 가지(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이것과 저것을 모두 다”로 성숙하게 대치시킬 훌륭한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굳게 그리고 동시에 양쪽 모두에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입니다.⁴⁷

⁴⁶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37-40.

⁴⁷ John Stott, *균형잡힌 기독교*, 정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83-84.

스토트가 취한 방식은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기질적으로 다른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adiaphora)로부터, 성경에 근거한 균형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스토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교리들 위에 함께 서 있게 되며, 성경이 모든 천성적인 기질을 통제하게 하여 균형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⁴⁸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경이 가진 분별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통 성경의 효과와 접점을 이루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코이노니아로서의 커리큘럼으로 시작했다. 1988년 외고 지역에 여름 1주간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자는 40여 명의 ‘뿌리기사역’ 이 계기가 되어 성경통독원(구, 한시미션)이 시작되었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기 위한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에서 공동체의 커리큘럼의 형태를 가진 통 성경의 기원을 볼 수 있다. 갖춰진 형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조병호의 진술은 공동체적 성경 통독의 영성이 존재함을 알게 한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나라를 이야기한다.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개인 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적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렴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때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인간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조병호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⁴⁸ Ibid., 11-21.

용서가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였다.⁴⁹

스윗은 기독교의 계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라는 한 인격으로 보았다. 이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를 믿는 믿음을, 종교학자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C. Smith)의 말을 인용하여, 독일어 어원에 있는 사랑(lieb)이 주는 관계적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생생히 살아 있는 하나님삶(GodLife) 관계를 살아내는 영적 실천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인간이 되는⁵⁰, 공동체적 영성을 강조한 제안이다. 이러한 진술은 예수를 따르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개인과 가정, 나라는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적 영성을 그 출발점이자 영원한 지향점으로 갖는 통 성경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통성경은 함께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성경이라는 같은 한 책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다. 이 같은 시도로 조병호는 하이기쁨교회와 성경통독원을 설립했고, 성인을 위한 성경 통독에서 청소년 성경 통독, 어린이 성경 통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공동체가 함께 하는 통독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 크든 작든, 통 성경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 외에도 심지어 성경은 혼자 읽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적 영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 통독은 철저히 공동체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준다.

⁴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44-48.

⁵⁰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19), 50-66.

레이투르기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레이투르기아로서의 커리큘럼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기도의 커리큘럼으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통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⁵¹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치는데, 조병호는 성경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⁵²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수렴하는 이해로 부터, 제물을 드리던 예배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이 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원리를 통 성경으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통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인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생생한 소리로 얻어지는 효과와 함께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발하는 과정으로서 기도이고, 찬양이며, 곧 예배이다. 일차적으로는 활자로 된 성경을 읽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소리가 있고, 열정적인 외침이 있으며, 결국에는 숭고한 결단에 이르는 생명력 있는 예배로서 영성이 있음을 통 성경은 보여준다.

하스데반(Stephen Hah)은 예배예술사역을 통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그 부흥의 의미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고, 늘어나는 건물도 아니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에 있지 않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느껴지고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학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가 방해되는 장소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⁵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⁵² 조병호, *통하는 영적 예배* (서울: 통독원, 2018), 104-122.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향하는 영성을 품어야 한다⁵³고 제안하는데,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구별된 실천- 이 때라,⁵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⁵⁵ -을 강조하는 점에서 통 성경이 가진 레이투르기아, 곧 기도의 커리큘럼과 같은 지평을 갖고 있다.

통 성경은 영적 예배의 커리큘럼이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365일을 따라 구성된 '365일 성경통독'⁵⁶과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⁵⁷에는 그 날의 본문 말씀과 어울리는 찬송가를 선별해 두었는데, 이는 소리 내어 말씀을 읽기 위해,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찬송하게 하는 구별된 예배로 부르는 데 적합한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이룬 찬송을 활용한다면, 성경 통독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편 145편 1절로 된 '왕이신 나의 하나님'⁵⁸ 또는 시편 46편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배와 찬양곡 '너희는 가만히 있어'⁵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디다케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디다케의 커리큘럼이다. 가르침의 커리큘럼으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부모가

⁵³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2336&code=cul> (2021년 2월 17일 접속).

⁵⁴ 요 4:23.

⁵⁵ 롬 12:1.

⁵⁶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0).

⁵⁷ 조병호,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⁵⁸ 하스데반.

⁵⁹ Ibid.

5세부터 20세 전에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칠 수 있다⁶⁰고 한다. 신명기의 쉼에서 지시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형태를 계승하는 통성경은, 기성 세대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양육하도록, 전 생애 주기에 성실하게 들려지고, 읽혀지며 보여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성경은 신앙의 계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성경은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으로 규정하고, 하루 1시간 30분이면 누구나 1년에 성경을 10번 읽을 수 있다고 도전해 준다. 조병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난다고 제시하며,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풍부한 주제들을 이야기한다. 앞서 해리스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환경과, 가르침의 형태들의 목록과, 디다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 폭넓은 범위로 소주제들을 접근할 것 등을 강조했는데, 통성경은 신앙 공동체로 모여, 보고, 듣고, 읽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무궁무진한 주제를 전개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예시가 된다.

오인택은 신구약의 모든 교육은 삶과 가르침의 일치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⁶¹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그 원형과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생활과 교육의 일치를 위하여 삶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히브리 민족의 가정 중심 종교 교육에서, 성경을 읽고 실천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억압도 이겨내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모습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영성 생활의 원형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통성경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⁶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⁶¹ 오인택,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125-140.

회복해야 할 참된 교육을 하는 교회로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통성경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원천인 말씀은, 살아 있는 언어로 쓰임 받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전통으로 전승되어 왔다. 경건한 삶은 성경적 삶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볼 때, 성경 통독은 신앙 공동체가 실행하고 전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다. 통 성경을 일상화하여 자녀에게 가르치고, 온 세상을 향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쉼마이자, 예수의 지상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성경통독원은 디다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년에 10번, 성경을 통독하는 전통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 1년 10번 성경 듣기 앱(App.)⁶²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케리그마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케리그마의 커리큘럼이 그 핵심이다. 통 성경은 성경본문의 최종 형태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본문 자체의 케리그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빠짐없이 다룰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케리그마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절주의, 권별주의, 예화주의를 경계하며 모든 성경이 케리그마인 것을 주목하게 한다.

조병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인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읽었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⁶² 성경통독원 홈페이지(tongdok.net)는 '1년 10번 성경듣기' 앱을 제공하고 있다(2021년 2월 18일 접속).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라는 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케리그마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언제나 복된 소식으로서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 성경으로 볼 수 있다.⁶³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청중들에게 성경 읽기를 촉구한다. 그는 설교 중에 거의 매번 “이 말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때 성경책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품게 하고,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성경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읽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설교자로서 자신의 승리로 여긴다고 소개한다.⁶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면 충돌한 듯이 문화적인 도전이 많은 지역에서, 영광스러운 뒤죽박죽이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예수의 모본으로 삼고 복음을 선포하는 스탠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대로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희망적인 목회를 보여주고 있다. 실천적 신학인 설교의 최종적 목표로, 성경 속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고 있는 형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경을 읽는 통 성경과 그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

통 성경은 말씀 선포의 커리큘럼이다. 통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게 해 준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통 성경은 구속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이 나누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의 오경에도 있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도

⁶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⁶⁴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4), 56-168.

있으며,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조병호는 설교자들이 모든 성경 대신 예화주의에 빠지거나 성도들이 요절주의에 빠지지 말고, 모든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통 성경에 집중하며, 모든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는, 모든 성경이 유효한 케리그마임을 보여준다.

디아코니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디아코니아의 커리큘럼을 비전으로 한다. 조병호는 통 성경을 통해 영성과 사회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 간다면,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며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⁶⁵ 그것은 결국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조성중(Sungjong Cho)은 예수의 리더십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들 위에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성경적 리더십⁶⁶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교회가 회복하고 강화해 갈 리더십이 ‘중’으로 부르심을 고유한 사명으로, 먼저 섬기는 자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알게 한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입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있다면, 출구의 역할로서 사회적 리더십 실천을 강조하는 통 성경은 봉사의 커리큘럼인 디아코니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성경이 얇은 책⁶⁷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⁶⁵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5), 658-659.

⁶⁶ 조성중,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위한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KMC, 2012), 274-277.

⁶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책의 두께로는 너무 얇다는 고백적 표현이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이 얇은 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책 한 권에 담겨진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도전은, 성경에 담겨진 놀라운 사랑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풍성한 연회장으로의 초대와 같다. 초대 교회에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과 같이, 가장 소중한 모든 성경을 마음껏 읽도록, 힘껏 살아내도록 땅 끝까지⁶⁸ 함께 나누는 영성이 통 성경의 영성이다.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는 간디(M. Gandhi)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요구하는 것이, 복음에 다른 것을 채색하지 말라는 제안이었다고 했다.⁶⁹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 개인들 사이와 집단들 사이, 그리고 인종과 나라들 사이에 적용되고, 세계를 통합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순전한 기독교적 사명을 이루는 예수 복음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인정하는 차원의 제안이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⁷⁰ 화평이신 예수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⁷¹고 성경은 짚막하게 전한다. 성경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봉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종의 자세는, 동서양 모든 곳에서 낮은 복음을 큰 복음으로 전해지게 할 것이다.⁷²

⁶⁸ 행 1:8.

⁶⁹ E. Stanley Jones,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김상근 역 (서울: 평단, 2007), 215-218.

⁷⁰ 롬 3:22.

⁷¹ 엡 2:14.

⁷² 최초의 내한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는, 그가 설립한 배재학당의 당훈을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 마 20-27-28)'로 삼아, 그리스도의 도성인신(道成人身)으로부터 선포되는 희생과 섬김을 교육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었다. 참고)

통 성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으로서 전도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쉽고 단순하지만 유익한 ‘도’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얹은 책이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성경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하고 있기에 인간의 말과 글로 남기기에 얹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받는 이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게 된다.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인식하면서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은, 양적 가치로만 평가되는 나눔과 섬김으로부터 성경적 가치의 헌신과 봉사를 이루기 위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 보인다. 통 성경이 지시하는 얹은 책 성경 속에 있는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얹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제 IV 장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 참여자 심층인터뷰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의 사례로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2020년 감염병 대 유행에 대응하여 안전한 교회학교 목회를 위해 모든 부서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서도 있었지만, 가뜩이나 현장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는 동영상으로 하는 활동은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현재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의 웨비나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마누엘 공동체의 경우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교재로 1년간 성경을 통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는 각자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읽기를 시작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서 매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갖게 한다. 또, 지금의 성경 통독이 일회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 평생 반복하여 훈련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 일인 것을 알게 하였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깨달아 진 대로 살면서, 다른 이에게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르도록 하는 데에 최종 목표가 있다.

성경을 통해 영성, 즉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이루는 것이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커다란 목적이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1년 52주간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 주일예배와 목요기도회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주일예배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소개한다. 본 주제들은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순서에 따라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에 따라 총 52마당으로 구성하였다.

성경 통독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재들에 의하면 일년 일독 성경 통독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원에서 제공하는 매일의 성경 통독 분량과 제목들을 월별로 제시한 그림을 부록에 신기로 한다. 또한 성경 통독원에서는 1년 52주, 각 주차별로 1회씩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구성해 두었는데, 그 역시 52주의 제목을 분기별로 제시된 그림을 모아 부록에 신기로 한다.

성경 통독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가정을 대상으로 구성된 내용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면,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일년 일독 성경 통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된 데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년 일독 성경 통독의 역사 순 성경 읽기 방식에서는 동일 하겠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겠다.

1마당(6/7/2020)

주제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코이노니아 영역	'성경'하면 생각나는 단어 또는 문장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성경은 얇은 책이다
케리그마 영역	'이 책(요한복음 21장 25절)'
디아코니아 영역	성경 읽기를 계획해 본다

2마당(6/14/2020)

주제	공부할 책 성경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과목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좋은 마르코'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책이다
케리그마 영역	'뜻을 정하여(다니엘 1장 8절)'
디아코니아 영역	나에게 주어진 청소년기에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3마당(6/21/2020)

주제	산서기 중요해
코이노니아 영역	산서 없이 일을 진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먼저 그 나라와'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성경은 역사상으로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케리그마 영역	'모든 성경(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아코니아 영역	성경을 역사상으로 배워해 본다

4마당(6/28/2020)

주제	구약성경을 이렇게
코이노니아 영역	구약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든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여호와 우리 주여(시편 8편)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구약성경은 4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A. 원역사, 족장시대, 모세와 출애굽시대 B.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C. 왕정시대 D.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케리그마 영역	'모든 성경2(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아코니아 영역	친구들과 함께 각 시대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을 적어 본다

5마당(7/5/2020)

주제	시작의 시작 창세기
코이노니아 영역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것을 5초 안에 말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그의 생각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 준다
케리그마 영역	'태초에(창세기 1장 1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그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생각해본다

6마당(7/12/2020)

주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코이노니아 영역	나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파상의 노래'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케리그마 영역	'너는 가라(창세기 12장 1-3절)'
디아코니아 영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나누어 본다

7마당(7/19/2020)

주제	사라의 웃음 그리고 이삭
코이노니아 영역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기뻐하며 왕게 노래 부르리'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이 이삭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이삭이라(창세기 21장 1-7절)'
디아코니아 영역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본다

8마당(7/26/2020)

주제	야곱과 열두 지파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의 가족 구성원은 누구누구인지, 조부모님까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이고'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갈래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케리그마 영역	'이스라엘이라(창세기 32장 28절)'
디아코니아 영역	영제와 자매,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다

9마당(8/3/2020)

주제	훈련받는 요셉
코이노니아 영어	어른 어른이 되고 싶을 때는 언제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어	'내 길 더 잘 아시니'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어	하나님께서서는 계획하신 훈련의 기간이 있다
케리크마 영어	'요셉의 하나님(창세기 50장 20절)'
디아코니아 영어	지금 나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0마당(8/10/2020)

주제	쓰임받는 요셉
코이노니아 영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어	'내 길 더 잘 아시니'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인을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우선한다
케리크마 영어	'요셉의 하나님2(창세기 50장 20절)'
디아코니아 영어	우리를 쓰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냐 나누어 본다

11마당(8/17/2020)

주제	EXODUS 모세
코이노니아 영어	'리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었다
케리크마 영어	'모세가 이르되(출애굽기 14장 13-14절)'
디아코니아 영어	각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12마당(8/23/2020)

주제	HOLY 레위기
코이노니아 영어	내가 받아 본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을 이야기해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케리크마 영어	'거룩하라(레위기 19장 2절)'
디아코니아 영어	내가(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달리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 본다

13마당(8/30/2020)

주제	SHEMA 신명기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케리크마 영역	'하나님을 사랑하라(신명기 6장 4-5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 평생에 꼭 남겨야 하는 가장 소중한 말 한 마디는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14마당(9/6/2020)

주제	종영무전 여호수아
코이노니아 영역	어떤 일에 두려워서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케리크마 영역	'너와 함께(여호수아 1장 7-9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쳐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15마당(9/13/2020)

주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코이노니아 영역	내게 늘 함께 해 주는 소중한 친구를 소개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주님이 주신 땅으로(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친구 갈렙을 기억하자
케리크마 영역	'나와 함께(여호수아 14장 11-12절)'
디아코니아 영역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가 되어 보자

16마당(9/20/2020)

주제	사사들의 시대
코이노니아 영역	각자가 느끼는 우리 나라의 부끄러웠던 시기가 언제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어든 밤 마음에 잠겨'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혼란스런 상황이 따른다
케리크마 영역	'제멋대로(사사기 21장 25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믿는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17마당(9/27/2020)

주제	로이란 여자, 보아스란 남자
코이노니아 영역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말문을 트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축복합니다'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진다
케리그마 영역	'로이 이르되<로기 1장 16절>'
디아코니아 영역	세상 속에서 만나보기 힘든 멋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 되어보고, 찾아보자

18마당(10/4/2020)

주제	마지막 사사 SAM
코이노니아 영역	내가 태어나기 전 나를 향한 부모님들의 기대를 서로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 속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에벤에셀<사무엘상 7장 12절>'
디아코니아 영역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19마당(10/11/2020)

주제	다윗과 시편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가 코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 어디서인지를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케리그마 영역	'할렐루야<시편 150장 1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

20마당(10/18/2020)

주제	King David
코이노니아 영역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어떤 자리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모든 인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
케리그마 영역	'다윗왕<사무엘하 7장 11-13절>'
디아코니아 영역	진정한 왕의 권세 아래 감격에 찬 한 주관을 살 것을 다짐한다

21마당(10/25/2020)

주제	대장부가 되어라
코이노니아 영역	오늘 나의 생이 끝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레이투르기아 영역	'너 어디 가든지'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물려주어야 한다
케리그마 영역	솔로몬에게(열왕기상 2장 1-3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게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22마당(11/1/2020)

주제	책사 후새처럼
코이노니아 영역	나의 베프(best friend)는 누구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나는 주의 친구'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다윗의 책사 후새처럼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케리그마 영역	'다윗의 친구(사무엘하 15장 37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 친구되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준다

23마당(11/8/2020)

주제	들어야 할 말씀
코이노니아 영역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명언들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한다
케리그마 영역	'네 마음을 지키라(잠언 4장 23절)
디아코니아 영역	지혜로운 사람의 길어 어느 편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24마당(11/15/2020)

주제	남북 분단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을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사망의 그늘에 앉아(그 날)'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말씀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케리그마 영역	'채찍(열왕기상 12장 14절)
디아코니아 영역	지혜 없이 행한 결과들(오답노트)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는다

25마당(11/22/2020) : 추수감사절

26마당(11/29/2020)

주제	갈멜산의 엘리야
코이노니아 영역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의 순간 어떻게 선택하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미라클 제너레이션'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 있다
케리그마 영역	'돌 사이에서(열왕기상 18장 21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만들어 가 본다

27마당(12/6/2020)

주제	에레미야의 눈물
코이노니아 영역	스프링에 복받쳐 솟아오른 경험들 이야기 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예수 예수'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서는 새 계명을 허락하셨다
케리그마 영역	'미래와 희망(에레미야 29장 11절)'
디아코니아 영역	언제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산다

28마당(12/13/2020)

주제	전짜 아이돌
코이노니아 영역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누구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이 작은 나의 빛'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빛나는 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별과 같이(다니엘 12장 3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이들로 살기를 꿈꿔본다

29마당(12/20/2020) : 성탄절

30마당(12/27/2020)

주제	신약성경을 이렇게
코이노니아 영역	신약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예수 이름이 온 땅에'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신약성경은 예수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전 그 사이의 편지와 계시록으로 순서를 따라 통독할 수 있다
케리그마 영역	'모든 성경3(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아코니아 영역	신약성경을 역사소스로 배열해 본다

31마당(1/3/2021)

주제	마태가 전한 복음
코이노니아 영역	나의 계보를 조상 어느 대에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가서 제자 삼으라'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케리그마 영역	'마태복음서(마태복음 1장 1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다짐한다

32마당(1/10/2021)

주제	마가가 전한 복음
코이노니아 영역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겸손의 왕'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
케리그마 영역	'마가복음서(마가복음 1장 1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게 임한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삶을 다짐한다

33마당(1/17/2021)

주제	누가가 전한 복음
코이노니아 영역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다가 되찾은 경험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자극 없는 날 왕께서(주의 자녀라 하시네)'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탁해 기다리신다
케리그마 영역	'누가복음서(누가복음 15장 11-32절)'
디아코니아 영역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34마당(1/24/2021)

주제	요한이 전한 복음
코이노니아 영역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백)'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요한복음서(요한복음 21장 20-25절)'
디아코니아 영역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누어 본다

35마당(1/31/2021)

주제	사도행전? 성령행전!
코이노니아 영역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한 사람들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마지막 날에'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1(사도행전 1장 8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땅끝이 어디인지를 서로 나누어 본다

36마당(2/7/2021) : 설날

37마당(2/14/2021)

주제	바울의 편지1 - 살전/후
코이노니아 영역	가장 즐거웠던 장거리 여행에 대해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항상 기뻐해요 심지어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가 시작된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2(데살로니가전서 5:16-18,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디아코니아 영역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지는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까 나누어 본다

38마당(2/21/2021)

주제	바울의 편지2 - 갈
코이노니아 영역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무엇이 번치 않아(십자가)'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3(갈라디아서 2장 20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 안에 간직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지를 나누어 본다

39마당(2/28/2021)

주제	바울의 편지3 - 고전/후
코이노니아 영역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주 여기 운행하시네(Way Maker)'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4(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디아코니아 영역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본다

40마당(3/7/2021)

주제	바울의 편지4 - 롬
코이노니아 영역	세계 최고의 도시가 어디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세상 흔들리고(오직 믿음으로)'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 예배자로 살라 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5(로마서 1장 17절, 12장 1-2절)'
디아코니아 영역	일상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누어 본다

41마당(3/14/2021)

주제	바울의 편지5 - 엡/빌/골/몬(옥중서신)
코이노니아 영역	아픈 몸을 견디며 해야 할 일을 해 본 경험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세상의 유희 시험이(조를 찬양)'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6(에베소서 2장 8절, 빌립보서 4장 13절, 골로새서 1장 15절, 빌레몬서 1장 10절)'
디아코니아 영역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전해지는 사랑의 보음을 기억한다

42마당(3/21/2021)

주제	바울의 편지6 - 딤후/딤후(목회서신)
코이노니아 영역	부모님에게 꼭 물어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빛을 들고 세상으로)'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케리그마 영역	'사도행전7(디모데전서 6장 11-12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도서 3장 10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됨을 기억한다

43마당(3/28/2021) : 종려주일

44마당(4/4/2021) : 부활주일

45마당(4/11/2021)

주제	구원자 예수
코이노니아 영역	교회를 왜 다니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케리그마 영역	'믿음은(히브리서 11장 1-2절)'
디아코니아 영역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서 찾아보고 찬양해 본다

46마당(4/18/2021)

주제	야고보의 편지
코이노니아 영역	걱심만 하고 이뤄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마일 영제나(흠 없는 경계)'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실천적 믿음을 원하신다
케리그마 영역	'죽은 믿음(야고보서 2장 26절)'
디아코니아 영역	나의 믿음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과제를 만들어 본다

47마당(4/25/2021)

주제	베드로의 편지 - 별전/후
코이노니아 영역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때로는 너의 앞에(초보성)'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케리그마 영역	'왕 같은 제사장(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디아코니아 영역	나와 내 곁에 있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

48마당(5/2/2021)

주제	유다의 편지 - 오
코이노니아 영역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외지했던 모든 것(주만 외지해)'을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끝날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따르며 외지해야 한다
케리그마 영역	'힘써 싸우라(유다서 1장 3-4절)'
디아코니아 영역	이겨내야 할 것된 유혹들의 목록을 적어 본다

49마당(5/9/2021)

주제	요한의 편지 - 요일/이/삼
코이노니아 영역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대로 말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아)'를 찬양한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케리그마 영역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사도(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삼서 1장 2절)'
디아코니아 영역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은 어디인지 생각해 본다

50마당(5/16/2021)

주제	마라나타
코이노니아 영역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 것이라 생각하든지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우리 함께 기뻐해'를 찬양하다
디다케 영역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대하며 산다
케리그마 영역	'주 예수의 은혜(요한계시록 22장 21절)'
디아코니아 영역	새롭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으로 생기 넘치는 삶을 산다

51마당(5/23/2021) 마무리

주제	인내일도
코이노니아 영역	이내가 이어던 모든 성경의 은혜를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주 날 구원해오니(머칠 수 없네)'를 찬양하다
디다케 영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케리그마 영역	'모든성경4(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아코니아 영역	삶으로 가증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

52마당(5/30/2021)

주제	통 성경
코이노니아 영역	부분과 전체, 숲과 나무의 장단점을 나누어 본다
레이투르기아 영역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찬양하다
디다케 영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케리그마 영역	'모든성경5(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아코니아 영역	모든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 새롭게 통 성경에 도전하다

인터뷰 개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중 하나는 그 커리큘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남녀 학생, 선생님과의 실질적인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그 주요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귀납적인 결론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 가지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개발에 있어서도 어떠한 해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인터뷰의 내용이 청소년들과 청년 교사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인터뷰 내용: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공동체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

상담자: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한 학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6월을 시작으로, 매 주일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갖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함께 한 분들의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학생1: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임마누엘 공동체 ○○○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등부, 고등부 예배도 있지만,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어중고등부로 모여서 편만한 우리말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매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2: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임마누엘 공동체 ○○○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교회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구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매 주일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참석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청년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교사로서 임마누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학생, ○○○학생과는 목사님보다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처음 만난 것이 5월 마지막 주일이고,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반년을 함께 하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임마누엘 공동체로 매 주일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학생1: 맞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섯다운(Shutdown) 되면서, 안전을 위해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학생2: 그래도 화상 채팅을 통해, 비록 비대면 형태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도 당연히 사회와 협력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상 채팅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공동체의 담당교역자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이런 방식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예배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면 활동을 하든, 또는 비대면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면 타당한 주일예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함께 드린 그간의 예배들은, 내용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일 예배였으며, 도리어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내용, 본질을 잃지 않는 훈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형식, 어떤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보다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물론 예전에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뭐랄까,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것들이 덜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실을 대체한 화상 채팅 환경을 통해서,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를 듣는 환경은, 집중도 차원에서 더 좋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대면예배 때와 달리 주위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항상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드러지고 있는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변함이 없고, 내용적 그 의미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변함이 없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나아가 예배의 내용이 변함이 없다면 정말 변한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가 있겠고, 더욱 명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변화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도 필요했고, 그러면서 예배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생각이 듣고 싶네요.

학생2: 앞서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낯설은 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교회라는 건물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매 주일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 만큼 예배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1: 처음에는 예배를 화상 채팅으로 드리게 되는 게 어색하고 싫기도 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었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은 학교도 모두 조심하느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느껴져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처음에는 교회에 갈 때와 많이 달라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옷 입는 거나, 주변 정리하는 거나, 알맞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잘 갖추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예배 때를 앞두고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조금은 이른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배는 많이 적응된 것 같아요. 찬양을 영상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이걸 정말 아니다 싶었는데, 여러 찬양팀이나 CCM가수들의 찬양을 마음껏 공유하면서 접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상담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공동체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년일독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주교재로 '365일 성경통독'을 부교재로 하고,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0-2021, 1년 동안 성경을 함께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지요. 매주 설교를 통해 그 주에 접하게 되는 말씀을 미리 살펴보게 되고, 또 실제로 성경통독표에 따라 성경읽기를 함으로써 실천을 하는 과정이지요. 이 커리큘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학생1은 어땠나요?

학생1: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1: 일단 이전에는 성경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정신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전에 알았던 이야기도 중간 중간에 생각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상담자: 그랬군요. 우리가 통 성경⁷³, 그러니까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님이 주창한 역사순 성경읽기로 구성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인데, 그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보니, 적어도 여기 저기 시간 순서가 뒤엎키는 과정은 확실히 없을 수 있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2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학생2: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최초의 경험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성경읽기를 어떤 주제를 잡고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체계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성경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배운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을 볼 때, 예전에 알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다루게 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학생1: 저도 아까 한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예전에 알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다시 나올 때, 예전에는 그냥 그 이야기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알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떤 때에 나온 이야기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사울이 이스라엘에 왕으로 있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순서에 따라 어디에 나오는

⁷³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7-36.

이야기인지 알게 되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전의 이야기들도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목사님과 우리가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통독원에서 모토로 외치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이런 게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담자: 네. 맞습니다. 총 5개의 모토가 있어요. 여러 곳에 나와 있고, 조금씩 문구도 변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도 새로 인쇄되고 있는 '365일 성경통독' 뒤 표지를 참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1. 성경은 얇은 책이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3.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5.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이야기를 담은 책이다."⁷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네. 그 중에서 학생1, 학생2가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을 1년에 10번 정도 듣는 과정으로 볼 때, 얻어지는 유의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숲과 나무의 이야기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 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마디로 예전에는 부분, 부분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아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과정 속에서, 예전의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동안 한 쪽에 치우쳤던 방식만을 고수하는 분위기와 달리, 성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전에 비해 확연히

⁷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참신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상담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성경통독원에서 제안하는 5개의 모토가 있다고 안내했는데, 조금씩 변화도 있었다고 했지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주일 커리큘럼으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청소년 성경통독'⁷⁵을 참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다섯 가지 관"이라는 주제로 5개의 모토를 소개하는데, '365일 성경통독'과는 달리 "4. 성경은 동서양이 담긴 책입니다."⁷⁶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의 초판⁷⁷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동서양의 방식을 모두 담은 성경읽기를 강조하는 이야기였어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기억해 주셨듯이 숲과 나무,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그 동안 우리가 접했던 성경읽기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나무, 즉 부분에 비중을 두는 읽기였고, 지금 하는 방식은 숲, 즉 전체에 비중을 두는 읽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다고 전체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숲, 또는 동양의 방식에 치우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른바 동서양을 담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전의 방식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번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유익함을

⁷⁵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 1, 2*, (서울: 통독원, 2013).

⁷⁶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14), 8.

⁷⁷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17.

경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커리큘럼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 많이 읽는 부분이에요. 1년에 10번 읽는다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의 비유가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동서양을 담는다는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으로 대체 되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번 들을 책'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예요. 부분과 전체를 반복, 또 반복하면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정교한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동서양의 방식을 검토, 재검토 하면서 교육적 효과랄까?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자: 역시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 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토가 바뀌고 있는지는 저도 앞으로 책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통째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읽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적 효과성의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학생2: 동서양의 관점 파트를 물으신 건가요? 아니면 10번 읽을 책 파트를 물으신 건가요?

상담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학생2: 저는 그렇다면 10번 읽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본 일이 없어요. 성경 말고도 사실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성경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씨를 읽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담자: '청소년 성경통독 _ 지도자 지침서'에 보면 "하루 1시간 30분이면 누구나 1년에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⁷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경은 읽어야 하며, 할 수 있다면 한 번만은 꼭, 열 번이면 더 좋고, 1년에 1번, 1년에 10번, 그렇게 평생에 몇 번이든 통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도 있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⁷⁹라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라남이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얻는 가장 큰 교육적 효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 통독은 충분히 도전할 만하며, 동시에 조금 축소되는 의미로 여겨질까 두렵지만, 매주 조금 씩, 조금 씩 읽는 예전 방식의 성경읽기도 적절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용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조금씩 볼 때에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전체를 두루 살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의 커리큘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감히 제가

⁷⁸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8.

⁷⁹ Ibid.

미리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1년 52주를 커리큘럼으로 보았을 때, 성경 전체를 성경 단지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다루는 과정은 전체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완벽함을 가진 형태로 나온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답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신학자들이 쓴 주석서들을 보아도, 객관적인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석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담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인간이 어떠한 일정한 범주로 다 표현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읽기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며,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부지런한 연습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1: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성경을 아직 통독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읽어 보는 것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기도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 반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 번 기도와 말씀읽기에 집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성경 통독 계속 하면 되겠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다른 것보다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에도 도움이 될 거야. 실제로 저도 요즘 매일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이 다른 어떤 신앙훈련보다 확실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상담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⁸⁰고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⁸¹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 생활을 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2: 저는 예배시간에 먼저 우리끼리 나눔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성경이나 기독교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소재를 찾아서, 말씀에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공부를 가장 좋아하는지?' 를 소재로 대화하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로 점점 들어갔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⁸⁰ 요 1:1.

⁸¹ 조병호, *1년1독 큐티 성경통독(4)*(서울: 통독원, 2014), 119.

그 덕분에 잠시라도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벼운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중심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과도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도 먹기 힘든 분말을 캡슐에 싸서 복용하듯이, 우리의 커리큘럼도 기술적으로는 그런 효험을 내기 위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코이노니아, 친교의 기능을 말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매우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함부로 내놓기 어렵고 꺼려지는 일들을 편안하게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독교적으로는 사랑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따스한 환대, 위로와 평안, 섬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체험입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개인과 가정, 또 정치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라 이야기를 풀어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진리로부터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교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만나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형편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나아가는 것인데, 항상 그 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금세 하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를 태면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생활로 되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예전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이노니아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케리그마 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담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네요.

학생1: 저는 코이노니아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느끼는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딱딱한 말씀으로 훑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예열을 하고 핵심에 접근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선생님 말씀처럼, 수련회 때 변화를 받으면서도, 예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쳇바퀴 도는 듯한 반복은 계속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려운 말,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다 좋은 것 같아요.

학생2: 저는 일단 코이노니아가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역시 케리그마가 아닐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케리그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이노니아가 좋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케리그마라고 생각해요.

상담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둘 다입니다. 괜히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말만 쉽게 둘 다 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이런 단어들은

우선 그리스어 표현인데 신약 성경의 원어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보다 와 닿은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코이노니아, 케리그마가 가리키고 있는 속성은 모두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나눔, 친교가 코이노니아이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선포가 케리그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나면, 쉽게 말해 코이노니아와 케리그마가 따로 따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 즉 교제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케리그마, 즉 말씀만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최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에, 이 둘은 공유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을 하자면, 성경에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함께 나, 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학생1: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제가 찬양으로 알고 있던 노래가사가 성경말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⁸²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경 말씀으로 된 가사더라고요. 시편 121편을 보니 같은 내용이 찬양가사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성경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⁸² 정성실.

학생2: 저도 찬양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코이노니아도 좋은 기능을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찬양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매 주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좋은 음악도 많고, 가사 내용도 좋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결국 성경말씀도 많아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상담자: 예전 어른들은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라는 표현으로 쓰시고는 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대화를 발전시켜 보면, 찬양은 ‘곡조가 있는 말씀’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네요. 특별히 학생1이 이야기 한 것처럼 성경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노래를 스크립처송(Scripture song)이라고 부른답니다. 학생1이 말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 그렇고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대표적인 스크립처송이지요. 정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성경에 대해 보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 이라고 강조하는 맥락과 연결되는데, 마치 스크립처송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듣는 활동이 동시에 동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스크립처송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벌써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찬양은 예배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피아노, 기타 등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네요.

상담자: 성경을 소리 내서 읽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배의 회복과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흥미롭게 소개하는 것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가 스크립처송으로 된 mp3 파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통독원에서 일년일독 통독성경 순서에 맞게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고, 보다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App.)으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만 한 가지, 멜로디가 있다기 보다는 성경 랩(rap)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기존 스크립처송과는 다릅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일은 성경을 통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서 읽으면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2: 처음에 인터뷰를 하게 될 때만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하고 보니 예상과 다르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과목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다른 과목을 배우지는 않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상담자: 인터뷰를 마치기에 앞서서, 성경 통독이 각자에게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 같은 것도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저는 성경이 얇은 책이라고 시작했던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책

한 권에 다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잘 되도록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임마누엘공동체 학생들도 성경 통독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다짐은, 하나님의 발걸음과 저의 발걸음을 더 잘 맞추어 가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묵상 등의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을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학생1: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요. 언제나 어떤 일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야겠어요.

학생2: 저는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사실에 아직까지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전히 두꺼운 책이 맞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보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으로는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 보는 것으로서 결심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데에도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기에는 얇은 책이라는 가르침은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을 하는 듯합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읽어 보아야겠다는 진지한 마음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그런 것은 성경이 주는 성스러움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그려 보면, 정말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백과사전에 비해 몹시 얇은 이 책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통독해 보아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지 않았나 깨치게 됩니다. 바라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부터 더 성실히 성경 통독에 힘쓰고, 나아가 그 놀라운 성과를 온 세상이 알도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분석

인터뷰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진행된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에 대한 남녀 학생, 선생님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미국 조지아 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이며 신앙생활의 연조도 각기 다르다. 선생님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오랜 시간 임마누엘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경험한 바 있다.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관점에서 경험했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국 조지아 주의 극심한 감염병 사태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된 커리큘럼이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성경 통독은 시도해 볼 만한 커리큘럼이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커리큘럼으로 실행하는 것은, 기존에 주된 형식이었던 작은 단위의 성경 본문을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는 교회학교 커리큘럼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을 오랜 시간 경험해 오던 공동체에, 성경 통독은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은 기존과 다른 방식이면서도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허용하고 진행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접하는 방식의 역사 학습방법과 같이, 역사 순으로 성경을 배열하여 접근하기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존재하는 성경 속 사건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를 함께 강조하는 효과를 통해 사고의 틀을 넓혀 주면서, 본질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완결성을 지닌 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도,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기에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성경 통독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해리스가 제시한 다섯 가지, 즉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형태를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 실행한 결과, 각각의 형태가 커리큘럼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주간의 성경 통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양에 대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노래 가사의 의미나 찬양의 진면목을 성경 자체에서 찾게 되는 과정과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영성 훈련의 여정이 레이투르기아로서의 기능을 지닌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 성장하는 교육적인 효과, 즉 디다케의 기능을 확인했다. 또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 말씀,

그 진리를 찾고 선포하고자 하는 케리그마의 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경이 매우 얇다는 역설적인 고백이 디아코니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두꺼운 성경 자체가 얇게 보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케리그마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며, 이를 통해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통독은 훌륭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대면 상황에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경 통독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하면서 그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부단히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의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되도록, 그 지향점을 잃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목회적 실천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성패는,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성경 통독 뿐만이 아니다. 성경 통독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 풍성함이 무궁무진하다는 데에서, 앞으로 더욱 연구할 분야가 다양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해 본다. 기독교 교육은 물론이고, 목회적 돌봄과 선교와 봉사 등 기독교적 삶의 실천을 추구하는 전 영역에

성경 통독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 임마누엘 공동체의 인터뷰를 통해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제 V 장

결 론

요약과 평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기독교교육학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 형태로 자리 잡은 마리아 해리스의 이론을 문헌를 바탕으로 연구하면서, 조병호가 제안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활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해리스의 이론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인 것을 밝힌 과정이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성경 통독은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녔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해리스가 제시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은,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교육으로 형성되는 삶 전체를 내용으로 본다. 신앙공동체의 모든 경험의 과정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해리스는 코이노니아(교제, 공동체의 커리큘럼), 레이투르기아(예배, 기도의 커리큘럼), 디다케(교육, 가르침의 커리큘럼), 케리그마(복음, 말씀선포의 커리큘럼), 그리고 디아코니아(섬김, 봉사의 커리큘럼) 등 다섯 가지 형태를 성경으로부터 제시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되는 것은 이

같은 과정들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재형성하는 가운데 빛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다. 성경 자체의 선포를 넘어서, 역사적으로도 인성교육, 홀리스틱교육 등에서 강조된 바에 의하면 성경을 통한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적 교육이다. 특별히 조병호의 통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로서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레이투르기아로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디다케로서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케리그마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끝으로 디아코니아로서 ‘성경은 앎의 책이다’ 를 강조하면서 성경 통독에서 추구하는 영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은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는 기치 아래 실천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모범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는 2020-2021 학년도를 맞아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 속에서도 성경 통독은 안전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무엇보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 지혜와 용기,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요컨대 성경 통독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⁸³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⁸⁴ 능력을 갖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⁸³ 교전 13:13.

⁸⁴ 딤후 3:16-17.

결론과 제언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모든 예견들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위기 대신 희망을 선포한다. 설령 교회 자체가 위기를 맞아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제의 감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예전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획일적인 가르침에서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복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랑 없는 나눔처럼 겸손한 섬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희망의 메시지는, 성경으로부터 들리는 예수 복음이, 급변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마저 해석될 때, 언제나 은혜가 있는 좋은 소식이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본질로의 갱신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문화 속에서 혼란을 두려워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예수를 읽고 말하라고 한다⁸⁵. 종교개혁시대와 마찬가지로, TGIF 시대에도 읽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만, 본질은 책에 있지 않고, 글씨에도 있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를 향하도록, 이웃들이 우리가 향하는 예수로 향하게 하는 원리⁸⁶에 있다는 것이다. 김영래는 하비 콕스(Harvey Cox)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망한 저서 '신앙(종교)의 미래'⁸⁷에서 '성령의 시대(The Age of the Spirit)'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⁸⁵ Leonard Sweet, *VITAL* (Colorado Springs: WaterBrook Press, 2012), 194-198.

⁸⁶ Ibid., 197, 스윗은 TGIF 문화 속에서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and Connective)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여 진리를 말하도록 제안한다.

⁸⁷ Harvey Cox, *The Future Of Faith*, (New York: HarperCollins, 2009).

시작된 과거를 찾아가는 미래로의 여행을 조망하고 있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예수회복(ReJesus)과 성경회복(ReBible), 기도회복(RePrayer)과 증언회복(ReWitness)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어두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⁸⁸. 한 마디로 미래교회는 고유한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추구할 때,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목회적 소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 것을 강조하는 조병호의 통 성경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된다. 마리아 해리스의 이론은 교육과 목회가 이분화되는 상황을 넘어 체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는데, 여기에 일년일독 성경 통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면, 교회생활의 전 과정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다.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는 일찍이 공동체가 성인기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신앙발달을 위한 모형들을 기대하고 제공할 때, 아동과 청년의 신앙을 양육하는 방식들도 함께 변화시켜야 할 것을 제안했고,⁸⁹ 모든 세대가 파이데이아(paideia) 차원에서 형성되는 소명을 통해⁹⁰ 교회의 프락시스(praxis)보다 광범위한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참여할 것⁹¹을 도전했다. 말하자면, 모든 삶의 단계에서 삶을 일치시키는 홀리스틱 교육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새로운 창조적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기록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로서, 또한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는

⁸⁸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222-238.

⁸⁹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Collins, 1981), 294-296.

⁹⁰ 파울러는 해리스의 디다케가 '교수'라는 제한적인 의미일 수 있음을 염두 하여 '형성'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파이데이아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26-238.

⁹¹ Ibid., 248.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우주적 지혜는, 여전히 아침마다 새로운⁹² 하나님 나라의 커리큘럼인 성경을 읽는 데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혼의 고향 같은 말씀의 숲이 그리운 시대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미국과 한국,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가 되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따르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한 알의 밀알⁹³처럼 썩어지되, 그 속에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싹 틔우는 자녀들, 젊은이들, 어른들의 교회가 바로 그 울창한 숲이 되어야 한다. 드넓은 숲에서 자유롭게 뒹굴면서 훈련과 치유의 과정을 배우듯이, 혼탁한 세속 도시의 한 가운데서도 맘껏 호흡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영성을 내뿜어 주는 숲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모든 세대에 필요한 모든 성경을 겸손히 외치 듯 통독하는 경배와 찬양 공동체를 통해, 땅의 모든 끝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확신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한다.

⁹² 에 3:23.

⁹³ 요 12:24.

부록1.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월별 목차

1월 January		10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	창 1~2장	천지창조-심히 즐으신 하나님의 마음
2	2	창 3~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3	3	창 6~9장	노아 홍수-하나님의 눈물
4	4	창 10~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흠어지는 민족
5	5	창 12~14장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6	6	창 15~17장	아브람의 기다림
7	7	창 18~21장	복의 통로 아브라함
8	8	창 22~24장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9	9	창 25~27장	이삭의 양보하는 삶
10	10	창 28~30장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11	11	창 31~33장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12	12	창 34~36장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13	13	창 37~38장	요셉의 고난과 꿈
14	14	창 39~41장	총리 요셉
15	15	창 42~44장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16	16	창 45~47장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17	17	창 48~50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18	18	출 1~2장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19	19	출 3~4장	하나님의 모세 설득
20	20	출 5~7장	모세와 바로의 협상 시작
21	21	출 8~10장	모세의 설득과 하나님의 기적
22	22	출 11~13장	유월절을 기념하라
23	23	출 14~15장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24	24	출 16~18장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25	25	출 19~20장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26	26	출 21~23장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27	27	출 24~27장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28	28	출 28~29장	제사장 직분의 위임
29	29	출 30~31장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30	30	출 32~34장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31	31	출 35~38장	풍성한 자원과 헌신

2월 February		47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2	출 39~40장	성막의 완성과 봉헌
2	33	레 1~5장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3	34	레 6~7장	제사의 규례
4	35	레 8~10장	새로운 리더십
5	36	레 11~13장	건강을 위한 배려
6	37	레 14~15장	생명을 위한 배려
7	38	레 16~17장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8	39	레 18~20장	거룩한 사랑
9	40	레 21~22장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10	41	레 23~25장	아름다운 절기문화
11	42	레 26~27장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12	43	민 1~2장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 편성-약속의 성취
13	44	민 3~4장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14	45	민 5~6장	구별과 헌신
15	46	민 7~8장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
16	47	민 9장~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17	48	민 10:11~12장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18	49	민 13~14장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세대의 선택
19	50	민 15~17장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20	51	민 18~19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21	52	민 20~21장	가나안에 갈 수 없게 된 모세
22	53	민 22~25장	하나님 군대의 명성
23	54	민 26~27장	두 번째 인구조사-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24	55	민 28~30장	거룩한 절기와 제사
25	56	민 31~32장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26	57	민 33~36장	이스라엘의 여정과 도피성
27	58	신 1~2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1
28	59	신 3~4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2

3월 March		81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60	신 5~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2	61	신 7~9장	명령과 순종
3	62	신 10~11장	하나님의 요구
4	63	신 12~14장	다시 들려주는 율법
5	64	신 15~17장	절기와 송사
6	65	신 18~21장	약속의 땅을 위한 규제
7	66	신 22~26장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8	67	신 27~28장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9	68	신 29~30장	언약의 갱신
10	69	신 31~32장	역사와 미래
11	70	신 33~34장, 시 90편	모세의 축복과 죽음
12	71	수 1~2장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13	72	수 3~5장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14	73	수 6~8장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15	74	수 9~12장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
16	75	수 13~17장	합당한 분배와 특권
17	76	수 18~19장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18	77	수 20~22장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19	78	수 23~24장	여호수아의 유언
20	79	삿 1장~2:10	남겨진 과제
21	80	삿 2:11~5장	이스라엘의 사사들
22	81	삿 6~7장	기드온과 3백 용사
23	82	삿 8~9장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24	83	삿 10~12장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25	84	삿 13~16장	나실인 삼손
26	85	삿 17~18장	기초가 무너진 사회
27	86	삿 19~21장	원칙 없는 문제 해결
28	87	룻 1~4장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29	88	삼상 1~3장	준비되는 사무엘
30	89	삼상 4~7장	사무엘의 말씀 개혁운동
31	90	삼상 8~10장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4월 April

9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91	삼상 11~12장	길르앗 아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2	92	삼상 13~14장	사울의 블레셋 전투
3	93	삼상 15~16장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4	94	삼상 17~18장	다윗의 골리앗 전투 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5	95	삼상 19장, 시 59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6	96	삼상 20~21장, 시 34편	기도로 여는 하늘문
7	97	삼상 22장, 시 52편	사울의 공안정치
8	98	삼상 23~24장, 시 57편	임명권자 하나님
9	99	삼상 25~26장, 시 54편	하나님의 테스트
10	100	삼상 27~31장	망명지에 들려온 조국의 슬픈 소식
11	101	삼하 1~2장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12	102	삼하 3장~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왕조 수립
13	103	삼하 5:6~6장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14	104	삼하 7~10장	종이 된 다윗 왕
15	105	삼하 11~12장, 시 51편	우슬초 정결
16	106	삼하 13~14장	압살롬의 암논 살해
17	107	삼하 15장, 시 3편	압살롬의 반역
18	108	삼하 16~17장	다윗의 도피
19	109	삼하 18~20장	다윗의 복귀
20	110	삼하 21~22장	다윗의 노래
21	111	삼하 23~24장	다윗의 삶의 자취
22	112	왕상 1~2장	다윗의 유언
23	113	왕상 3~4장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24	114	왕상 5~7장	성전 건축
25	115	왕상 8장	성전 낙성식
26	116	왕상 9~10장	솔로몬의 모든 영화
27	117	잠 1~5장	지혜란 무엇인가?
28	118	잠 6~9장	지혜의 원리
29	119	잠 10~15장	의인의 삶, 악인의 삶
30	120	잠 16~20장	지혜를 구하라

5월 May

45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21	잠 21~24장	마음과 지혜
2	122	잠 25~29장	악한 길을 피하라
3	123	잠 30~31장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4	124	아 1~4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5	125	아 5~8장	진실한 사랑
6	126	왕삼 11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7	127	전 1~3장	인생의 뒤편길에서의 고백
8	128	전 4~7장	유한인생 무한지혜
9	129	전 8~12장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10	130	욥 1~3장	욥의 고난과 탄식
11	131	욥 4~7장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12	132	욥 8~10장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13	133	욥 11~14장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14	134	욥 15~17장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15	135	욥 18~19장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16	136	욥 20~21장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17	137	욥 22~24장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18	138	욥 25~31장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19	139	욥 32~37장	엘리후의 발언
20	140	욥 38~42장	하나님의 대답
21	141	시 1~2, 4~9편	시와 찬미
22	142	시 10~18편	시와 찬미
23	143	시 19~27편	시와 찬미
24	144	시 28~33편	시와 찬미
25	145	시 35~41편	시와 찬미
26	146	시 42~50, 53편	시와 찬미
27	147	시 55~56, 58, 60~66편	시와 찬미
28	148	시 67~72편	시와 찬미
29	149	시 73~78편	시와 찬미
30	150	시 79~85편	시와 찬미
31	151	시 86~89편	시와 찬미

6월 June		91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52	시 91~102편	시와 찬미
2	153	시 103~106편	시와 찬미
3	154	시 107~118편	시와 찬미
4	155	시 119편	시와 찬미
5	156	시 120~134편	시와 찬미
6	157	시 135~142편	시와 찬미
7	158	시 143~150편	시와 찬미
8	159	왕상 12~14장	남북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9	160	왕상 15장~16:20	분쟁하는 남북왕국
10	161	왕상 16:21~17장	오므리 왕조
11	162	왕상 18~19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12	163	왕상 20~22장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아합의 최후
13	164	왕하 1~2장	엘리아에서 엘리사로
14	165	왕하 3~5장	엘리사가 베포 기적의 배경
15	166	왕하 6~8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16	167	왕하 9~10장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17	168	왕하 11~14장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18	169	암 1~5장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언
19	170	암 6~9장	점익를 강물 같이
20	171	호 1~4장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21	172	호 5~9장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22	173	호 10~14장	여호와께 돌아오라
23	174	욘 1~4장	열방을 향한 사랑
24	175	왕하 15~16장	북왕국의 쇠락
25	176	왕하 17장~18:12	히스기야의 개혁
26	177	사 1~3장	이사야의 소명
27	178	사 4~7장	그루터기 비유
28	179	사 8~12장	구원에 대한 약속
29	180	사 13~17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30	181	사 18~20장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7월 July		9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82	사 21~24장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2	183	사 25~29장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3	184	사 30~35장	의로 통치하는 왕
4	185	왕하 18:13~37, 사 36장	남유다를 위협하는 앓수르
5	186	왕하 19장, 사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6	187	왕하 20장, 사 38~39장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7	188	사 40~42장	하나님의 위로
8	189	사 43~45장	이스라엘의 회복
9	190	사 46~50장	이스라엘의 구원
10	191	사 51~55장	고난 받는 종
11	192	사 56~59장	참된 회개
12	193	사 60~63장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13	194	사 64~66장	영광과 평화의 침사진
14	195	미 1~3장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15	196	미 4~7장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16	197	왕하 21~23장	왕정 총결산
17	198	습 1~3장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18	199	합 1~3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9	200	나 1~3장	열방을 향한 공의
20	201	올 1~3장	마음을 찢으라
21	202	왕하 24장, 렘 1~3장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22	203	렘 4~6장	패역한 남유다
23	204	렘 7~9장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24	205	렘 10~13장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25	206	렘 14~16장	마음을 돌이키라
26	207	렘 17~20장	남유다의 죄
27	208	렘 21~23장	예레미야의 설득
28	209	렘 24~25장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29	210	렘 26~28장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30	211	렘 29~31장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
31	212	렘 32~33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8월 August		47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13	렘 34~36장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2	214	렘 37~38장	예레미야의 수난
3	215	왕하 25장, 렘 39~41장	예루살렘 멸망
4	216	렘 42~45장	남겨진 남유다 백성의 행동
5	217	렘 46~48장	열방에 대한 심판
6	218	렘 49~50장	세계를 향한 심판
7	219	렘 51~52장	하나님의 심판
8	220	애 1~2장	무너지는 예루살렘
9	221	애 3~5장	소망-주의 인자와 긍휼
10	222	읍 1장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11	223	대상 1~3장	다윗의 계보
12	224	대상 4~5장	이스라엘의 족보들 1
13	225	대상 6~9장	이스라엘의 족보들 2
14	226	대상 10~12장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15	227	대상 13~16장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16	228	대상 17~20장	다윗의 기도와 승전기록
17	229	대상 21~22장	다윗의 죄악과 회개
18	230	대상 23~26장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19	231	대상 27~29장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20	232	대하 1~4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21	233	대하 5~7장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22	234	대하 8~9장	솔로몬의 업적
23	235	대하 10~13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24	236	대하 14~17장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25	237	대하 18~22장	여호사밧의 시대
26	238	대하 23~25장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27	239	대하 26~28장	웃시아, 요담, 아하스 시대
28	240	대하 29~31장	히스기야의 개혁정치
29	241	대하 32~33장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
30	242	대하 34~36장	요시아 시대와 남유다 멸망
31	243	겔 1~3장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9월 September		83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44	겔 4~7장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2	245	겔 8~11장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3	246	겔 12~14장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4	247	겔 15~17장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5	248	겔 18~20장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6	249	겔 21~22장	심판받는 이스라엘
7	250	겔 23~24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8	251	겔 25~28장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9	252	겔 29~32장	애굽에 대한 심판
10	253	겔 33~35장	예루살렘의 함락
11	254	겔 36~37장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12	255	겔 38~39장	침략자 곁에 대한 심판과 멸망
13	256	겔 40~41장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14	257	겔 42~43장	하나님의 본뜻
15	258	겔 44~46장	여호와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16	259	겔 47~48장	회복과 새로운 땅
17	260	단 1~2장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18	261	단 3~4장	꺾이지 않는 신앙
19	262	단 5~6장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20	263	단 7~9장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21	264	단 10~12장	장래의 일들
22	265	스 1~2장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세대
23	266	스 3~4장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24	267	학 1~2장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25	268	속 1~6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26	269	속 7~10장	예루살렘의 회복
27	270	속 11~14장	이스라엘의 구원
28	271	스 5~6장	성전 재건의 기쁨
29	272	에 1~5장	유다 민족의 위기
30	273	에 6~10장	위대한 구원

10월 October

9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74	스 7~8장	에스라의 결심
2	275	스 9~10장	개혁을 위하여
3	276	느 1~3장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
4	277	느 4~7장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5	278	느 8~10장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6	279	느 11~13장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7	280	말 1~4장	천오백 년 사랑의 아쉬움
8	281	마 1~4장	약속의 결정체, 예수
9	282	마 5~7장	산상수훈
10	283	마 8~10장	예수의 이적과 열두 제자 선택
11	284	마 11~13장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 비유
12	285	마 14~16장	예수의 갈릴리 사역
13	286	마 17~20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14	287	마 21~23장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15	288	마 24~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16	289	마 26~28장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17	290	막 1~3장	열두 제자 선택
18	291	막 4~6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1
19	292	막 7~8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2
20	293	막 9~10장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21	294	만 11~13장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22	295	막 14~16장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23	296	눅 1~2장	세례 요한 탄생
24	297	눅 3~4장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25	298	눅 5~6장	훈련과 동행
26	299	눅 7~8장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27	300	눅 9~10장	약한 자의 이웃
28	301	눅 11~13장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29	302	눅 14~16장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30	303	눅 17~18장	예수의 치유와 교훈
31	304	눅 19~20장	약자를 위한 배려

11월 November		45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05	눅 21~22장	최후의 만찬
2	306	눅 23~24장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	307	요 1~3장	들러리의 기쁨
4	308	요 4~6장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5	309	요 7~8장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6	310	요 9~11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7	311	요 12~13장	새 계명을 주심
8	312	요 14~15장	예수의 고별 설교
9	313	요 16~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10	314	요 18~19장	예수의 십자가 사역
11	315	요 20~21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12	316	행 1~2장	증인이 된 제자들
13	317	행 3~5장	세워지는 초기교회
14	318	행 6~9장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흠어짐
15	319	행 10~12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16	320	행 13장~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17	321	행 15:36~18:22	2차 전도여행
18	322	살전 1~5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19	323	살후 1~3장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20	324	갈 1~3장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21	325	갈 4~6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	326	행 18:23~19장	3차 전도여행
23	327	고전 1~4장	십자가의 도
24	328	고전 5~8장	교회를 위한 권면
25	329	고전 9~11장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26	330	고전 12~14장	성령이 주신 은사
27	331	고전 15~16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28	332	고후 1~4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29	333	고후 5~9장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30	334	고후 10~13장	바울의 참된 자랑

12월 December

80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35	행 20:1~6, 롬 1~3장	복음에 빛진 지
2	336	롬 4~7장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3	337	롬 8~11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4	338	롬 12~14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5	339	롬 15~16장	땅 끝 비전과 받은 심김
6	340	행 20:7~23장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7	341	행 24~26장	가이사랴에서의 2년
8	342	행 27~28장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9	343	엡 1~3장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
10	344	엡 4~6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11	345	빌 1~4장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12	346	골 1~4장	우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13	347	몬 1장	기적의 편지
14	348	딤후 1~6장	예수의 선한 일꾼
15	349	딤후 1~3장	희망의 상속자
16	350	딤후 1~4장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17	351	히 1~4장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18	352	히 5~10장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19	353	히 11~13장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이름, 예수
20	354	약 1~5장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21	355	벧전 1~5장	소망의 반석
22	356	벧후 1~3장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23	357	유 1장	믿음을 위한 투쟁
24	358	요일 1~5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5	359	요이 1장, 요삼 1장	사랑과 진리의 조화
26	360	계 1~3장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27	361	계 4~7장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28	362	계 8~11장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29	363	계 12~15장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30	364	계 16~18장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31	365	계 19~22장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부록2.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가정예배 목차

가정예배		Family Worship	
1월	새로운 시작	창 1~21장	19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세요	창 22~41장	27
	유언과 비전	창 42~50장, 출 1~10장	35
	기적 같은 이야기	출 11~29장	43
2월	하늘보석	출 30~40장, 레 1~10장	52
	'기록'은 사랑이에요	레 11~27장	60
	민수기 이야기	민 1~14장	68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민 15~32장	76
3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민 33~36장, 신 1~14장	86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신 15~34장, 시 90편	94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	수 1~22장	102
	사사들의 이야기	수 23~24장, 삿 1~16장	110

가정예배		Family Worship	
4월	사막의 오아시스	삿 17~21장, 룻 1~4장, 삼상 1~12장	11
	다윗의 예선전	삼상 13~24장, 시 59,34,52,57편	19
	왜 '다윗' 일까요?	삼상 25~31장, 삼하 1~12장, 시 54,51편	27
	천년모범 다윗 왕	삼하 13~24장, 왕상 1~2장, 시 3편	35
	솔로몬 이야기	왕상 3~10장, 잠 1~15장	43
5월	지혜롭게 살아요	잠 16~31장, 아 1~6장, 왕상 11장	52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전 1~12장, 욕 1~14장	60
	이제야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욕 15~42장	68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시 1~66편	83
6월	후손에 이어지는 신앙	시 67~118편	98
	믿음의 그늘 아래서	시 119~150편	110
	순종이 낳은 기적	왕상 18~22장, 왕하 1~14장	11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암 1~9장, 호 1~14장, 온 1~4장, 왕하 15~16장	126

가정예배		Family Worship	
7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왕하 17장-18:12, 사 1-24장	11
	치료하시는 하나님	왕하 18:13-20장, 사 25-45장	19
	우리 가정에 바라는 것	사 46-66장, 미	27
	믿음으로 즐거운 가정	왕하 21-24장, 습, 합, 나, 율, 렘 1-3장	35
	예레미야의 기도	렘 4-28장	43
8월	물 댄 동산 같은 즐거움	렘 29-48장, 왕하 25장	53
	사랑하는 형제에게	렘 49-52장, 애, 음, 대상 1-5장	61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어요	대상 6-29장	69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대하 1~25장	77
9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대하 26-36장, 겔 1-11장	86
	누구를 의지할까요?	겔 12-32장	94
	하나님께서서 함께하십니다	겔 33-48장	102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단, 스 1-4장	110
	함께 마음을 모아요	학, 속, 스 5-6장, 에 1-10장	118

가정예배		Family Worship	
10월	성벽 재건을 통한 기쁨 나누기	스 7-10장, 느, 말	17
	큰 기쁨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마 1-23장	25
	거친 풍랑을 넘어선 사랑	마 24-28장, 막 1-13장	33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 14-16장, 눅 1-13장	41
11월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어요	눅 14-24장, 요 1-6장	50
	예수님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	요 7-21장	58
	복음과 증인	행 1장-18:22, 살전 1-5장	66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살후 1-3장, 갈 1-6장, 행 18:23-19장 고전 1-11장	74
12월	오직 사랑으로	고전 12-16장, 고후 1-13장, 행 20:1-6 롬 1-7장	84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교백	롬 8-16장, 행 20:7-28장, 엡 1-3장	92
	믿음의 가정, 세상에서의 승리	엡 4-6장, 빌, 골, 몬, 딤편, 딛, 딤후	100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히, 약, 벧전, 벧후, 유	108
	그리스도인의 승리	요일, 요이, 요삼, 계	116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 Harvey Cox. *The Futhre Of Faith*. New York: HarperCollins, 2009.
- Leonard Sweet. *VIRAL*. Colorado Springs: WaterBrook Press, 2012.
-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 2*. HarperCollins, 2006.
-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Collins, 1981.

번역서적

-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김흥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4.
- E. Stanley Jones.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김상근 역. 서울: 평단, 2007.
-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 John Stott. *균형잡힌 기독교*. 정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19.
- Leonard Sweet.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윤종석 역. 서울: IVP, 2004.
-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W. Klaiber, M. Marquardt. *감리교회 신학*. 조경철 역. 서울: KMC, 2008.

한국어 서적

- 강선보 외 6인 공저.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 고용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 김경진.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통독원, 2017.
-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 문도연, 장원동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상조사, 2004.
- 오인탁.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한교, 2008.
- 왕대일. *구약성서 이해 열 마당*. 서울: 새길, 2007.
- 이만열. *아펜젤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이성덕. *구약성서 길라잡이*. 대전: 배재대학교 학술정보처, 2014.
-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 조병호.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5.
-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 1, 2*. 서울: 통독원, 2013.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조병호. *통하는 영적 예배*. 서울: 통독원, 2018.

조성중.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위한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KMC, 2012.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두란노 편집부.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특별대담*. 서울: 두란노, 2000.

웹사이트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2336&code=cu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637&code=23111211&cp=nv>.

<http://news.v.daum.net/v/20080111181109519>.

<http://www.tongdok.net>.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Kwangsoo Song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Republic of Korea, March 3, 1980

Parent's Names: Jonghong Song and Junghi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Hyundai Senior High School 127, Apgujeong-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3, 1998
Collegiat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B.S	Feb 17, 2006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oo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8, 201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wangsoo Song

Name typed

March 12, 2021

Date